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현장 시행을 위한 역량 기반 수업 및 평가 설계틀 개발 연구

이진화 (중앙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rch 17, 2025

Revised: May 13, 2025

Accepted: May 19, 2025

Lee, Jin-Hwa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84, Heukseok-ro, Dongjak-go, Seoul, Korea, 06974
Email: jinhlee@cau.ac.kr

ABSTRACT

Lee, Jin-Hwa. 202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ompetency-based instruction and assessment framework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in Korea.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5, 707-724.

Based on O'Sullivan's (2021) Comprehensive Learning System, this study aimed to facilitate the delivery and assessment of the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by developing a framework for competency-based instruction and assessment in English. To achieve this, the study first analyzed the USA's competency-based foreign language curriculum and its supporting online system, LinguaFolio, as a reference. This was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content structure of Korea's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The analysis identified four main components of teaching content: competency, area, delivery medium, and sub-categories of competency (i.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process and skills, values and attitudes). To systematically integrate these components into teaching and assessment, the study proposed frameworks for lesson and test design, accompanied by examples. Additionally, further recommendations were made for developing an online system to support instruction and assessment.

KEYWORDS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Comprehensive Learning System (CLS), content structure, competency-based instruction and assessment, frameworks for lesson and test design

1. 서론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이제 막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표방한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은 분절된 지식의 축적 대신 복잡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적 함양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으로,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왔다. 외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미국, 유럽, 핀란드와 같은 서구권 국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에서도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이진화 2022).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역량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역량 선정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소영 2016, 이영아 2022, 윤찬미, 이진화 2018)과 선정된 역량이 교육과정에 일관성 있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미진 2019, 한혜정 외 202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총괄 역량으로 제시하고 그 하위에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두는 방식으로 역량 개념을 위계화하였고,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을 새롭게 추가하여 총론의 핵심 역량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이영아 2023). 또한, 여섯 개의 교과 역량이 목표는 물론 내용 체계, 성취 기준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걸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으로서 한층 강화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의 마련이 곧 역량 기반 교육의 실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선 교육과정 문서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하여, 교사들이 교육과정 자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과정 문해력을 갖추지 않는 한, 부정확한 이해 혹은 각기 다른 해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발표될 때마다 집중적인 교원 연수가 이루어지지만, 해당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하고 시행하고 평가하는 일은 여전히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아 있다.

역량 기반 교육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타당한 평가 방안을 반드시 함께 모색해야 한다(O'Sullivan 2021).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현장 실행을 위한 수업 설계들과 평가 설계들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수업 및 평가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 온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참조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구성 요소를 반영한 수업 설계들과 평가 설계들을 구안하였다.

2. O'Sullivan의 통합 학습 시스템(Comprehensive Learning System)

O'Sullivan(2021)은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육과정, 교수 행위, 교재 개발, 교사 교육, 평가 등을 제각기 독립적인 요소로 다뤄온 기존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의 통합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안한 통합 학습 시스템에서는 그림 1과 같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세 개의 축, 즉 교육과정(curriculum), 시행(delivery), 평가(assessment)가 단일 학습 철학에 기반을 두고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작동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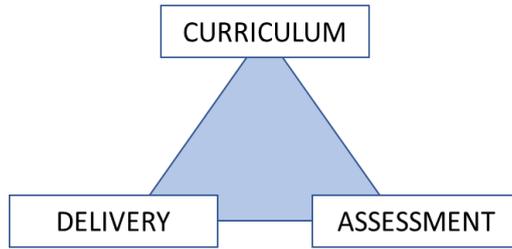


그림 1. O'Sullivan의 통합 학습 시스템 모형(2021, p. 8)

O'Sullivan(2021)에 따르면, 먼저 교육과정은 가르칠 내용을 결정한다. 시행은 교육과정을 구체적인 학습 맥락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으로서, 교실에만 초점을 두었던 다른 학습 모델과 달리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습 교재 등 교육과정 시행에 관련된 모든 요소가 포함된다. 마지막 요소인 평가는 반드시 교육과정과 실제 시행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학습자의 언어 수준을 판단하는 평가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을 지원하는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요소가 서로 부합하지 않으면 해당 프로그램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령, 교육과정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을 강조하면서 문법이나 독해 중심의 교재를 사용하거나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혹은 교사 교육의 미비로 인하여 교육과정의 변화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O'Sullivan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최초 프로그램 개발 단계에서부터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고려가 비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통합 학습 시스템을 언어 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O'Sullivan(2021)은 중급 수준 영어 읽기 프로그램 개발 사례를 제시하였다. 우선 통합 학습 시스템의 근간에는 명확하게 진술된 읽기 능력 발달 모델이 있어야 하는데, 가령 Khalifa와 Weir(2009)의 모델을 채용하면 읽기는 어휘, 문장, 문단, 다문단 순으로 발달하고 구체적인 주제에서 추상적인 주제, 상호텍스트(intertextuality)로 확장된다. 이러한 모델을 기반으로, 교육과정에서는 해당 수준에서 다루어야 할 텍스트의 길이, 어휘 복잡성, 문법 복잡성 등을 구체화한다. 이렇게 개발된 교육과정의 시행을 위해서는 교사 교육을 통해 앞서 채택한 읽기 발달 모델 및 이에 적합한 교수법을 가르쳐야 하고, 효과적인 교재, 과업, 물리적 공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평가 측면에서는 평가에 적합한 텍스트와 과업, 명확한 성공 지표의 마련, 의미 있는 채점 및 성적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O'Sullivan(2021)은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4 기능 중심 접근법(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에서 벗어나 유럽공통참조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적 사용 중심 접근법(수용, 생성, 상호작용, 매개)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도 통합 학습 시스템 모형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정확히 현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당면한 과제이다. 통합 학습 시스템 모형의 첫 번째 요소인 교육과정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그 근간은 전통적인 4 기능 접근법에서 탈피한 역량 중심 교육이다. 이제는 이러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평가할 실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이다.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시행할 때 수업과 평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부분이다. 교육 내용에는 학습자가 무엇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학습해야 하는지가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림 2와 같이 수많은 요소가 여러 층위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 기저의 내용 구성 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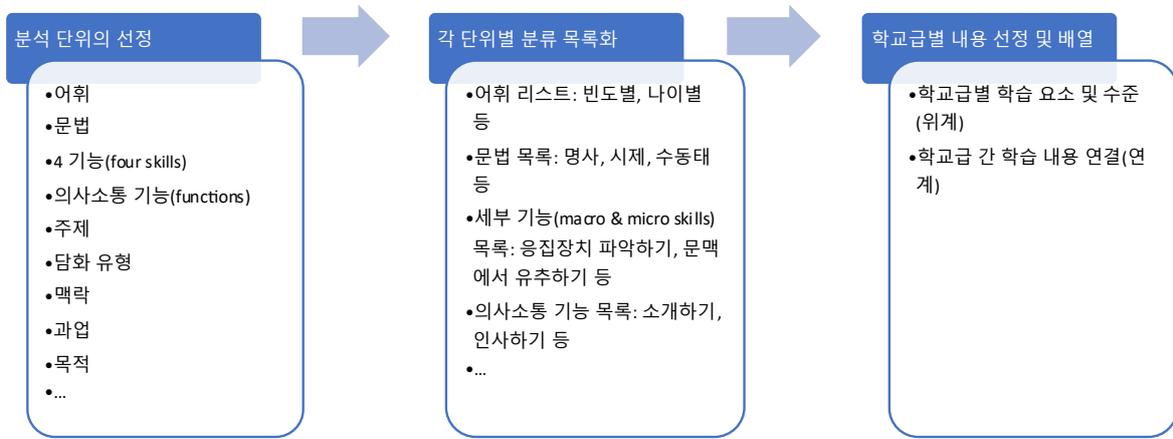


그림 2.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구성 체계 수립 절차

내용 구성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학습 요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영어의 언어 체계 및 영어 능력을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어야 한다. 이때 어휘, 문법, 4 기능(four skills), 의사소통 기능(functions), 주제, 텍스트 유형, 과업 유형, 맥락, 목적 등과 같이 수많은 분석 단위(unit of analysis)가 선택지로 존재하며, 이 가운데 몇 개의 분석 단위를 포함할 것인지, 복수의 분석 단위 간 위계는 어떻게 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결정은 반드시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경우, ‘성격’에서는 교과 역량을 제시하였으나 ‘목표’에서는 정의적, 인지적, 문화적 목표를 제시하고, 내용 체계는 4 기능으로 영역을 구분함으로써 전체적인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김미진 2019, 이진화 2022, 한혜정 외 2020).

다음으로는, 각 분석 단위에 대한 분류 목록(taxonomy)이 필요하다. 가령, 어휘를 내용 요소로 선택했다면 빈도별 혹은 나이별로 분류된 어휘 목록이 필요하고, 문법을 선택했다면 문법 항목 목록이 필요하다. 만일 각 분석 단위별로 체계화된 분류 목록이 없다면 내용 요소의 선정은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분석 단위 및 분류 목록이 정해지고 나면, 이를 기반으로 학년 혹은 학교급별로 어떤 요소를 어느 수준까지 학습하게 할 것인지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수행 기술문 혹은 성취기준이다. 국가 교육과정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교육이 시행되므로 학교급 간 층위 및 연계를 염두에 두고 수행 기술문을 작성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목표와 교육 내용은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 평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므로,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업과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아직은 생소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기존의 지식이나 기능 중심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이미 20여 년간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내용 체계와 수업 및 평가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기로 한다.

3.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내용 체계와 수업 및 평가 지원 시스템

3.1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체계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는 큰 틀에서는 영어 능력 함양으로 귀결되지만, 이때 영어 능력이란 무엇이며 그 하위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점과 이론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가능하다. 미국의 국가 외국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세계 준비를 위한 언어 학습 기준(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NSFLEP 2015) 문서에서는, 언어 교육의 목표를 표 1에서와 같이 ‘의사소통(Communication)’, ‘문화(Cultures)’, ‘연결(Connections)’, ‘비교(Comparisons)’, ‘공동체(Communities)’의 다섯 목표 영역(Goal Areas)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21세기 핵심 역량을 반영한 것으로, 외국어 교육의 목표를 언어적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폭넓은 역량의 함양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각 목표 영역 아래에는 2~3개의 내용 기준(Content Standards)이 제시되어 있다.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화자 간 의사소통(interpersonal communication)’, ‘해석형 의사소통(interpretive communication)’, ‘제시형 의사소통(presentational communication)’으로 나뉘는데, 이는 ‘의사소통 모드(communication mode)’, 즉 의사소통 목적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다. 이때 의사소통 모드에 사용되는 ‘전달 매개(delivery medium)’가 문서이면 읽기나 쓰기 활동, 음성이면 듣기나 말하기 활동, 시각 자료나 다중매체이면 보거나 제시하기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전통적인 4 기능은,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달 매개에 따라 자연스럽게 정해지며, 교육의 초점은 읽기, 듣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읽거나 듣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

다음으로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은 이러한 목표에 상응하도록 ‘의사소통’ 목표 영역의 세 가지 내용 기준이었던 ‘화자 간 의사소통’, ‘해석형 의사소통’, ‘제시형 의사소통’ 모드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다. 또한 언어적 자질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의사소통 기능, 맥락과 내용, 텍스트 유형, 언어 제어, 어휘, 의사소통 책략, 문화적 인식, 일곱 개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이 언어적 자질들은 독립적인 학습 영역이 아니라 각 의사소통 모드에서 학습자의 수행 수준을 능숙도 수준별로 단계화 할 때 고려하는 ‘변수(parameters)’라는 점이다.

외국어 능력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내용 체계가 마련되면, 이 분류틀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수행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수행 기술문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 수행 기술문은 기술 층위의 수와 단계 제시 방식에 따라 구체성 정도에 차이가 있다.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ACTFL 능숙도 수준별로 여러 층위에 걸쳐 매우 상세한 수행 기술문을 제공하고 있다. ‘세계 준비를 위한 언어 학습 기준’ 문서에는 ‘목표 영역과 내용 기준(Goal Areas and Content Standards)’에 이어서, ‘수행 기술문(Performance Descriptors)’, ‘예시 수행 지표(Sample Performance Indicators)’, ‘예시 발달 지표(Sample Progress Indicators)’가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미국의 외국어 교육자 학술 단체인 ACTFL(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이 개발한 ‘언어 학습자를 위한 ACTFL 수행 기술문(ACTFL Performance Descriptors for Language Learners)’(ACTFL 2012)과, ACTFL이 주정부 언어 담당자 협의체인 NCSSFL(National Council of State Supervisors for Languages)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NCSSFL-ACTFL 능력 진술문(Can-Do Statements)’(ACTFL 2013)에 기반을 두고 있다.

표 1.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목표 및 내용 체계(NSFLEP 2015)

구분	내용	
목표	[Goal Areas & Content Standar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mun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Learners interact and negotiate meaning in spoken, signed, or written conversations to share information, reactions, feelings, and opinions.</i> - Interpretive communication: <i>Learners understand, interpret, and analyze what is heard, read, or viewed on a variety of topics.</i> -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i>Learners present information, concepts, and ideas to inform, explain, persuade, and narrate on a variety of topics using appropriate media and adapting to various audiences of listeners, readers, or viewers.</i> ▪ Cultu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lating cultural practices to perspectives - Relating cultural products to perspectives ▪ Conne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king connections - Acquiring information and diverse perspectives ▪ Comparis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guage comparisons - Cultural comparisons ▪ Commun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chool and global communities - Lifelong learning 	
내용 영역	[Communication modes]	[Paramet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Interpretive communication ▪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unctions ▪ Contexts and content ▪ Text type ▪ Language control ▪ Vocabulary ▪ Communication strategies ▪ Cultural awareness
수행 기술 층위	Communication Modes	
	-> Performance Descriptors	
	-> Sample Performance Indicators	
수준 구분	-> Sample Progress Indicators	
	ACTFL Proficiency Levels: Novice Low ~ Superior	

표 2의 예시는 ‘의사소통’ 목표 영역의 하나인 ‘제시형 의사소통’의 목표 진술이 ‘수행 기술문’, ‘예시 수행 지표’, ‘예시 발달 지표’ 단계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점점 더 구체적인 수행 기술로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먼저 ‘수행 기술문’은 ‘목표 영역 및 내용 기준’에 제시된 추상적인 목표를 구체화하고 순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단계화 한 기술문이다. 현재는 ‘의사소통’ 목표 영역의 하위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화자 간 의사소통’과 ‘제시형 의사소통’에 대해서만 ‘수행 기술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하여

‘ACTFL 능숙도 지침(ACTFL Proficiency Guidelines)’의 초급(Novice), 중급(Intermediate), 고급(Advanced) 수준 범위(range)에 있는 학습자들이 학습의 결과로 무엇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가령, 표 2의 예시를 보면, ‘제시형 의사소통’ 기준인 “학습자는 적절한 매개를 사용하여 다양한 청중, 독자, 시청자에게 맞게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알리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하거나 서술하기 위하여 정보, 개념, 생각을 제시할 수 있다”(NSFLEP 2015, p. 9)라는 일반적인 목표 진술에 대하여, 초급 수준의 수행 기술문에서는 “초급 수준의 학습자는 연습했거나 암기한 단어, 구,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여 매우 친숙하면서 일상적인 주제에 관한 정보를 구두, 문자, 혹은 수화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와 같이 해당 능숙도 수준에 맞는 발화의 속성, 단위, 주제의 성격 등을 언급함으로써 수행 양상을 구체화하고 있다(NSFLEP 2015, p. 61, 볼드체 추가).

표 2.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수행 기술 예시: ‘제시형 의사소통’ 영역(NSFLEP 2015)

Component	Example	
Goal Area & Content Standard: <input checked="" type="checkbox"/> Communication <input type="checkbox"/> Interpersonal <input type="checkbox"/> Interpretive <input checked="" type="checkbox"/> Presentational <input type="checkbox"/> Cultures <input type="checkbox"/> Connections <input type="checkbox"/> Comparisons <input type="checkbox"/> Communities	Communication: <i>Communicate effectively in more than one language in order to function in a variety of situations and for multiple purposes.</i> Presentational Communication: <i>Learners present information, concepts, and ideas to inform, explain, persuade, and narrate on a variety of topics using appropriate media and adapting to various audiences of listeners, readers, or viewers.</i>	
Performance Descriptor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vice range <input type="checkbox"/> Intermediate range <input type="checkbox"/> Advanced range	<i>Learners in the Novice Range can present information on both very familiar and everyday topics using a variety of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phrases, and simple sentences through spoken, written, or signed language.</i>	
Sample Performance Indicator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vice Low <input type="checkbox"/> Novice Mid <input type="checkbox"/> Novice High <input type="checkbox"/> Intermediate Low <input type="checkbox"/> Intermediate Mid <input type="checkbox"/> Intermediate High <input type="checkbox"/> Advanced Low <input type="checkbox"/> Advanced Mid <input type="checkbox"/> Advanced High <input type="checkbox"/> Superior	Global Statement	Sample Indicators <input checked="" type="checkbox"/> Speaking <input type="checkbox"/> Writing
	Novice Low Learners can ■ <i>introduce themselves</i> ■ <i>express likes and dislikes</i> ■ <i>name very familiar people, places, and objects</i> <i>using practiced or memorized words and phrases, with the help of gestures or visuals</i>	Novice Low Learners can ■ <i>recite words and phrases that they have learned</i> ■ <i>state the names of familiar people, places, and objects in pictures and posters using words or memorized phrases</i> ■ <i>introduce self to a group</i> ■ <i>recite short memorized phrases, parts of poems, and rhymes.</i>
Sample Progress Indicator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vice range <input type="checkbox"/> Intermediate range <input type="checkbox"/> Advanced range	■ <i>Learners can prepare illustrated stories about activities or events in their environment and share these stories and events with an audience in the school or community or post them to a website.</i> ■ <i>Learners dramatize and video songs, short anecdotes, or poetry commonly known by peers in the target culture and post them to the school website or to a video sharing website.</i> ■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문장으로 제시된 ‘수행 기술문’은 여전히 목표 진술에 가깝다. ‘매우 친숙하면서 일상적인 주제’는 무엇이고, ‘간단한 문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바로 ‘예시 수행 지표’이다. ‘예시 수행 지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수준의 학습자가 교수자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요약한 ‘총괄 진술(Global Statement)’과, 이를 전달 매개별로 구체화한 ‘예시 지표(Sample Indicators)’가 있다. ‘예시 수행 지표’는 초급 하(Novice Low)부터 최상급(Superior) 수준까지 열 개의 수준 각각에 대하여 제공된다. 표 2의 ‘총괄 진술’에 따르면, 초급 하 수준의 학습자는 제시형 의사소통 상황에서, 제스처나 시각 자료의 도움을 받아 연습하거나 암기한 어휘 및 구문을 사용하여 1) 자기를 소개하고, 2)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표현하고, 3) 매우 친숙한 사람, 장소, 사물의 이름을 말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진술은 언어의 세 가지 매크로 기능(macro-function), 즉 사적인 서술(interpersonal), 평가 및 의견 개진(evaluative), 정보 전달(transactional) 목적의 언어 사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같은 ‘총괄 진술’의 수행 지표는 다시 전달 매개별로 나뉘어 ‘예시 지표’에 제시되는데, 가령 구두 언어를 사용할 경우 초급 하 수준임을 보여주는 예시 지표로는, 배운 단어나 구 암송하기, 단어나 암기한 구를 사용하여 그림과 포스터에 나타난 친숙한 사람, 장소, 사물 이름 말하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예시 지표’는 “학습 상황(언어 수행)과 학습한 언어의 실생활 적용(능숙도)을 연결(a bridge between the instructional setting (language performance) and the real-world application of the language learned (proficiency))”하는 역할을 한다(NSFLEP 2015, p. 61).

마지막으로 ‘예시 발달 지표’는 초급, 중급, 고급 수준 범위에서 학습자가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과업의 예시를 보여준다. 가령, 표 2에서 초급 수준 학습자가 ‘제시형 의사소통’ 능력을 연습하고 향상하려면, 주변 활동이나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고 이를 학교나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유하거나 웹사이트에 게시하기, 타 문화의 동료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래, 짧은 일화, 시 등을 드라마화하고 녹화하여 학교 웹사이트나 공유 사이트에 게시하기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앞서 ‘수행 기술문’과 ‘예시 수행 지표’는 ‘의사소통’ 영역의 하위 두 개 내용 기준(‘화자 간 의사소통’, ‘제시형 의사소통’)에 대해서만 제공되었으나, ‘예시 발달 지표’는 모든 목표 영역 및 하위 내용 기준에 대하여 초급, 중급, 고급 수준 범위로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수행 양상을 ‘수행 기술문’, ‘예시 수행 지표’, ‘예시 발달 지표’ 순으로 층위를 나누어 점점 구체화함으로써,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목표가 실생활과 연결된 구체적인 과업 수준까지 일관성 있게 이어지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나 교사가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또한 평가 측면에서는, 해당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나 지표가 무엇이고 이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업을 수행할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세밀한 수행 기술과 더불어,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은 그림 3과 같은 ‘학습 시나리오(Learning Scenarios)’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이는 다양한 외국어 교사들로부터 수집한 실제 수업 사례로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수업 활동 내용과 함께 이러한 활동이 어떤 교육 목표와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그림 3의 예시에서 학생들은 교사가 가져온 프랑스 빵과 땅콩버터 바른 빵을 맛보고 비교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업은 외국어 교육 목표 가운데 세 가지 영역의 세 가지 내용 기준, 즉 ‘의사소통’ 영역의 ‘화자 간 의사소통’, ‘문화’ 영역의 ‘문화적 산물과

관점 연결하기’, ‘비교’ 영역의 ‘문화 비교’ 기준을 함양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 시나리오’는 언어적 요소 이외의 다양한 핵심 역량 목표가 외국어 수업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여섯 개의 교과 역량을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시행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BREAD AND CHOCOLATE

Third grade students studying French listen as the teacher describes foods typically eaten in France and typically eaten in the United States, such as *pain au chocolat* and sourdough bread with peanut butter. The students sample some food brought by the teacher. They share their impressions, describing the food in French and commenting on how it tastes. Generally, students take a piece of the *pain au chocolat*, and a couple of them like the new taste. Three students decide they don't care for the new taste. When the time comes for other students to try something new, most of them decide they won't like it and decline the offer. The teacher then asks who would like peanut butter and bread, and the whole class finds the offer irresistible. While the students are enjoying their peanut butter and bread, they learn from the teacher that most people in France would not enjoy this combination of foods. The students compare the tastes of the French and Americans and discuss the differences in food preferences. They are surprised to learn that something they consider to be tasty is not necessarily considered so by others. Some of the students then ask to try the *pain au chocolat* to experience something new.

TARGETED STANDARDS	REFLECTIO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tudents share their opinions about some foods from France and from the United States.
 Relating Cultural Products to Perspectives	Students encounter a new aspect of culture that they would not otherwise know.
 Cultural Comparisons	Students express their impressions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some sampled foods from France and from the United States.

그림 3.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학습 시나리오’ 예시(NSFLEP 2015, p. 116)

3.2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기반 수업 및 평가를 위한 지원 시스템: *LinguaFolio*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수행 기술은 ‘NCSSFL-ACTFL 능력 진술문’을 참고하였는데, 이 문서의 전신은 2009년 NCSSFL이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외국어 능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만든 ‘NCSSFL LinguaFolio Self-Assessment Checklist’이다(ACTFL 2013). 여기에 등장하는 LinguaFolio는 Oregon 대학의 응용 제2언어 연구 센터(Center for Applied Second Language Studies)에서 개발한 외국어 학습 온라인 포트폴리오 시스템이다. LinguaFolio의 기반이 되는 ‘NCSSFL-ACTFL 능력 진술문’ 문서에는 앞서 살펴본 미국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틀, 즉 목표 내용 기준, 수행 기술문, 수행 지표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풍부한 과업 예시(examples)를 제공하고 있는데, 가령, ‘제시형 의사소통’ 영역에서 초급 상 수준에 도달하려면, 일하는 장소와 하는 일 묘사하기, 지난 주에 한 일 친구에게 말하기, 다가오는 계획에 대해 친구에게 짧은 노트나 이메일 쓰기, 편지나 블로그 등에 자신의 일상에 대해 쓰기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화된 능력 진술문을 기반으로 설계된 LinguaFolio Online은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 및 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 역할에 그치지 않고, 그림 4와 같이 교사가 학습 목표를 수립하여 이를 토대로 수업과 평가를 시행하고 개별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ACTFL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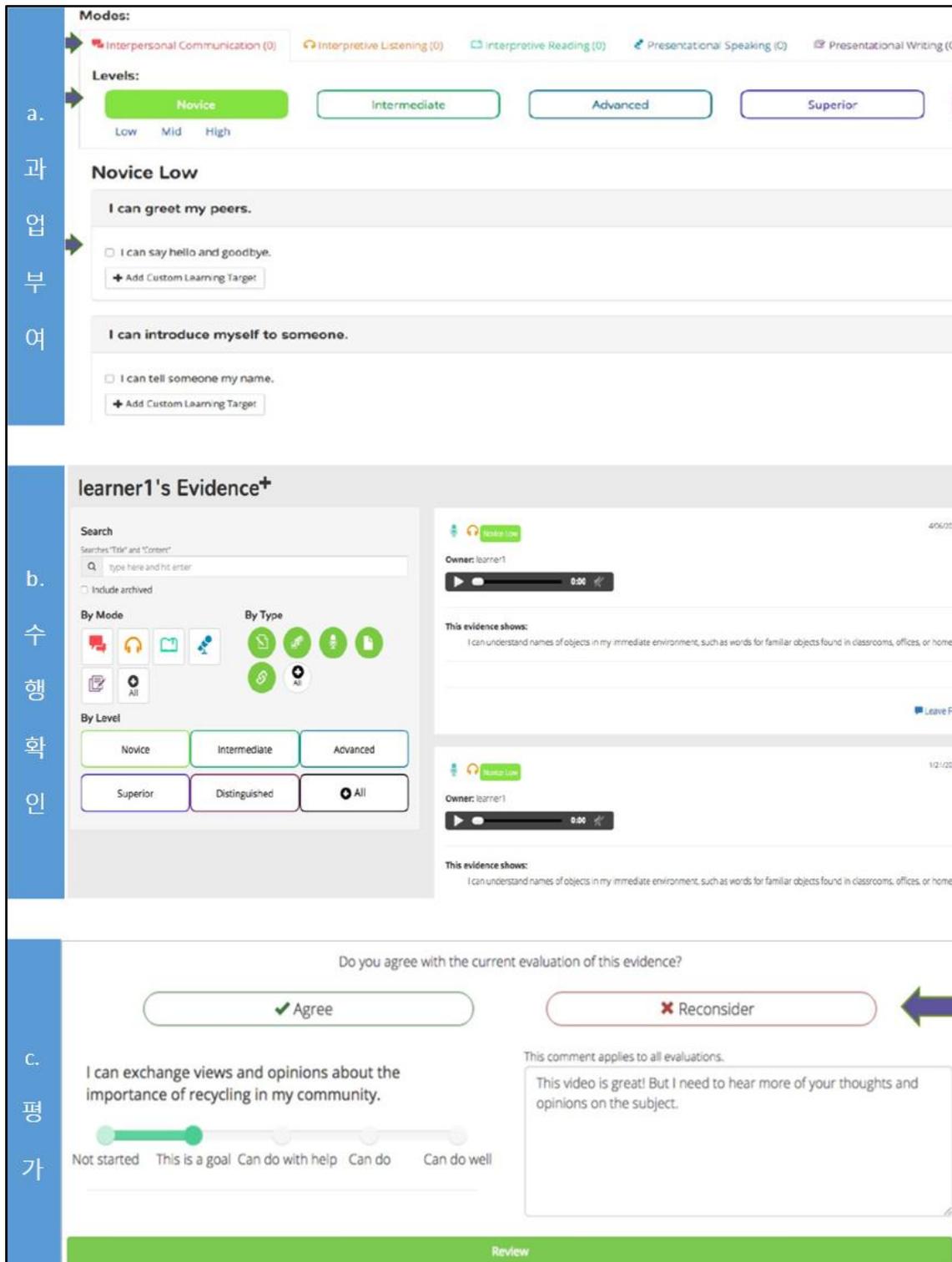


그림 4. LinguaFolio Online 교사 화면에서의 과업 부여, 수행 확인, 평가¹

¹ (<https://lfonetwork.uoregon.edu/>)

교사는 그림 4a와 같이 LinguaFolio Online의 교사용 대시보드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목표로 혹은 평가 목적으로 과업을 부여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이미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교사는 각 영역별 요소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먼저 목표로 하는 의사소통 모드(예. 화자 간 의사소통)를 선택하고, 이어서 수행 수준(예. 초급 하)을 선택한다. 그러면 해당 목표 기준의 해당 능숙도 수준에 속하는 전체 과업 리스트가 화면에 나타난다. 이 가운데 교사가 수업이나 평가에 사용할 과업(예. 친구에게 인사할 수 있다: hello와 goodbye를 말할 수 있다)을 클릭하면 곧바로 학생들에게 공지가 된다. 이후 학생이 해당 과업을 수행하여 결과물을 시스템에 제출하면, 교사는 그림 4b와 같이 대시보드에서 학생의 결과물(예. 음성 녹음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물은 해당 목표 영역의 해당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된다. 교사는 시스템에서 학생들의 수행 결과물을 하나씩 확인하고 이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그림 4c와 같이 바로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LinguaFolio는 수업이나 평가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과업과 수행 지표, 평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교사가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목표를 수립하고 백워드 디자인 방식으로 수업을 설계한 후 증거에 기반한 평가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 기반한 수업 및 평가 설계틀 개발

4.1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체계

교육과정 기반 수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나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영역은 그림 5에 잘 나타나 있다. ‘영어 의사소통 역량’을 최종 목표로 하고, 그 아래에 여섯 개의 교과 역량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이해, 표현, 사용자 간 상호작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의사소통 모드를 기본으로 내용 영역을 구분한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과 유사한데, 다만 사용자 간 상호작용 영역이 미국의 교육과정에서는 독립 영역으로 제시된 반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이해 영역과 표현 영역의 결합으로 처리하고 별도의 성취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림 5.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영어과 역량 및 영역 구성(교육부 2022, p. 4)

다음으로 교육 내용 진술 체계를 살펴보면, 교육 내용의 일차적 조직자는 ‘영역’인데, 영어과의 경우 그림 5의 두 개 내용 영역(이해, 표현) 각각에 대하여 표 3과 같이 학습자의 수행 수준(성취 기준) 기술에 필요한 영어 능력 및 요소를 정리한 내용 체계표를 제공한다.

표 3.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표: ‘이해’ 영역(교육부 2022, pp. 7-8)

핵심 아이디어	· 의사소통 목적과 상황에 맞게 배경지식을 활용하고 관점, 목적과 맥락을 파악함으로써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 적절한 사고 과정 및 전략을 활용하여 담화나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분석한다. · 담화나 글을 이해하는 활동은 협력적이고 포용적으로 화자나 필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태도를 길러 준다.		
	범주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언어 지식 · 이해	· 쉽고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소리, 철자, 강세, 리듬, 억양 ·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 [별표 3]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른 학습 어휘 수 300단어 이내 · [별표 4] 초등학교 권장 언어 형식	· 간단한 단어, 어구,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 [별표 3]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른 학습 어휘 수 300단어 이내 · [별표 4] 초등학교 권장 언어 형식	· 단어와 문장의 강세, 리듬, 억양, 연음이나 축약 · [별표 2] 의사소통 기능과 예시문 · [별표 3] 기본 어휘 관련 지침에 따른 학습 어휘 수 1,500단어 이내 · [별표 4] 중학교 권장 언어 형식
맥락	· 이야기나 서사 및 운문(동화, 그림책, 만화, 노래, 시 등) · 친교나 사회적 목적의 담화와 글(대화, 편지, 이메일 등) · 정보 전달·교환 목적의 담화와 글(표지판, 메모, 묘사, 안내 등)	· 이야기나 서사 및 운문(동화, 그림책, 만화, 노래, 시, 일기 등) · 친교나 사회적 목적의 담화와 글(대화, 편지, 초대장, 이메일 등) · 정보 전달·교환 목적의 담화와 글(공지, 안내, 묘사, 설명, 광고 등) · 의견 전달·교환이나 주장 목적의 담화와 글(포스터, 감상문 등)	· 이야기나 서사 및 운문(수필, 단편 소설, 대본, 시, 전기문, 여행 일지 등) · 친교나 사회적 목적의 담화와 글(이메일, 소셜 미디어, 인터뷰, 초대장 등) · 정보 전달·교환 목적의 담화와 글(공지, 안내, 설명, 보고, 기사, 광고 등) · 의견 전달·교환이나 주장 목적의 담화와 글(논설, 연설 등)
과정· 기능	· [별표 1] 소재 · 자기 주변 주제 · 간단한 의사소통 상황 및 목적 ·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 [별표 1] 소재 · 일상생활 주제 · 일상적인 의사소통 상황 및 목적 ·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 [별표 1] 소재 · 친숙한 주제 ·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 및 목적 · 다양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의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가치· 태도	· 소리 식별하기 · 알파벳 대소문자 식별하기 ·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 소리와 철자 관계 이해하며 소리 내어 읽기 · 의미 이해하기 · 주요 정보 파악하기 · 시각 단서 활용하여 의미 추측하기 ·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문장을 듣거나 읽기	· 강세, 리듬, 억양 식별하기 · 강세, 리듬, 억양에 맞게 소리 내어 읽기 · 의미 이해하기 · 세부 정보 파악하기 · 중심 내용 파악하기 · 일이나 사건의 순서 파악하기 · 시각 단서 활용하여 듣거나 읽을 내용 예측하기 · 특정 정보를 찾아 듣거나 읽기 · 내용 확인하며 다시 듣거나 읽기 ·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기	· 연음이나 축약된 소리 식별하기 · 세부 정보 파악하기 · 줄거리나 요지 파악하기 · 주제 파악하기 · 일이나 사건의 순서, 전후 관계 파악하기 · 일이나 사건의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 기분이나 감정 추론하기 · 의도나 목적 추론하기 · 단어, 어구, 문장의 함축적 의미 추론하기 ·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글을 듣거나 읽기 · 적절한 전략 활용하여 듣거나 읽기
	·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고 듣거나 읽으며 즐기는 태도 ·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공감하는 태도 · 다양한 문화와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태도		· 자신감을 가지고 관심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듣거나 읽는 태도 ·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는 태도

내용 체계표에는 가장 먼저 핵심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그 아래에 역량의 세 가지 범주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가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 범주인 지식·이해는 다시 언어와 맥락으로 구분되는데 언어에는 어휘, 의사소통 기능, 언어 형식, 담화 유형 등 언어 자질과 관련된 요소들이 포함되고, 맥락에는

소재, 의사소통 상황 및 목적,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인 과정·기능에는 인지적 기능과 책략 사용이 포함되어 있고, 세 번째 범주인 가치·태도에는 영어 학습에 대한 태도는 물론 영어를 통해 접하게 되는 문화, 사회, 사람에 대한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해나 표현 활동은 구두, 문자, 다중모드 등 다양한 전달 매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표 3의 내용 체계표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고려나 범주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과정·기능’ 범주의 기술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담화나 문장을 듣거나 읽기’, ‘특정 정보를 찾아 듣거나 읽기’ 등과 같이 구두, 문자를 활용한 활동이 모두 언급되어 있고, “[9영01-10]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다양한 담화나 글을 선택하여 적극적으로 듣거나 읽는다”(교육부 2022, p. 20)와 같이 성취 기준 기술에도 다양한 전달 매개의 활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에서 유의할 점은, 듣거나 읽기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등한시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적합하게 구두로, 문자로, 혹은 두 가지를 결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자율성과 선택권을 교사나 학습자에게 부여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전달 매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수업 및 평가 시 의사소통 모드와 더불어 다양한 전달 매개의 사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학습 내용 선정에 있어서, 교과 역량, 의사소통 모드, 전달 매개, 역량 범주(언어 지식, 사용, 태도)를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 구성 요소와 위계를 구조화하면 그림 6과 같다. 최상단에는 6개의 교과 역량이 영어과 교육 목표로 자리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은 의사소통 모드에 따라 2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영역의 활동은 다양한 전달 매개로 수행될 수 있으며, 활동을 통해 역량의 세 가지 범주인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함양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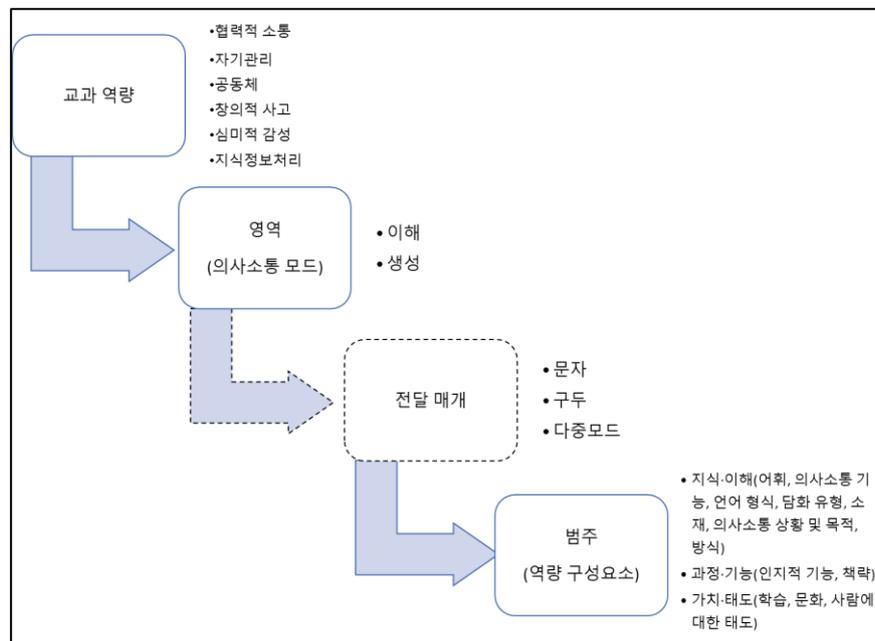


그림 6.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학습 내용 구성 체계

4.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역량 기반 수업 설계를 위한 틀

그림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은 다각적이고 복잡한 학습 내용 구성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교사 개인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에 적용하여 시행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미국의 LinguaFolio Online처럼, 교사가 교육과정 문서를 일일이 찾아보고 숙지하지 않아도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요소가 이미 시스템 내에 탑재되어 있어서 각 요소를 순차적으로 선택하기만 하면 교육과정 기반 수업이나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교육과정 시행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은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주요 요소를 반영한 수업 및 평가 설계틀을 개발하여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은 그림 6의 내용 체계를 반영하여 구안한 수업 설계틀을 예시와 함께 제시한 것이다.

1. 단원명: 4. Get healthy, be happy!

2. 단원 목표:

- 1) 자신의 평소 식습관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 2) 청소년들의 식습관 문제가 전세계 공통 현상임을 파악하고, 해외 청소년들에게 한국의 건강한 음식을 소개할 수 있다.

3. 차시별 계획:

차시	학습과업	학습활동	교과역량 ¹⁾	영역 ²⁾	전달매개 ³⁾	범주 ⁴⁾	성취 기준
1	자신의 현재 식습관 파악하기	청소년들의 식습관 문제 뉴스 시청하기	지식정보처리	이해	다중모드(보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9영01-03]
		식습관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자기관리	이해 & 표현	문자		[9영02-04]
2	건강한 식습관 알아보기	동영상/글을 통해 좋은 식습관 파악하기	지식정보처리	이해	다중모드/문자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9영01-02]
		파악한 내용 리스트 만들고 공유하기	협력적 소통	표현 & 상호작용	문자 & 다중모드(제시하기)		[9영02-07]
3	자신의 식습관 개선하기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¹ (차시)와 좋은 식습관 ² (차시) 비교하여 문제점 찾기	지식정보처리	이해	문자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9영01-04]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을 통해 마련하고 발표하기	협력적 소통 창의적 사고	표현 & 상호작용	구두/다중모드(제시하기)		[9영02-05]
4	해외 청소년의 식습관 문제 조사하기	조별로 다른 나라 청소년 사례 조사하기	지식정보처리 공동체	이해	문자/다중모드(보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9영01-10]
		조사 사례 발표하기	협력적 소통	표현 & 상호작용	다중모드(제시하기)		[9영02-07]
5	한국의 건강한 음식 찾기	건강한 한국 음식 조사하기	지식정보처리	이해	문자/다중모드(보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9영01-10]
		소개할 음식 정해 이유 발표하기	창의적 사고 공동체	표현 & 상호작용	다중모드(제시하기)		[9영02-06]
6	선정한 음식 레시피 작성하기	선정한 음식 레시피 조사하기	지식정보처리	이해	문자/다중모드(보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9영01-10]
		레시피 작성하기	창의적 사고	표현	문자		[9영02-07]
7	음식 만드는 법 소개하기	음식 소개 동영상 만들기	창의적 사고	상호작용 & 표현	다중모드(제시하기)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9영02-09]
		동영상 시청하고 코멘트 남기기	협력적 소통	이해 & 표현	다중모드(보기) & 문자		[9영02-11]

❖ 표 기술 방법
 1) 교과 역량(협력적 소통, 자기관리, 공동체,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지식정보처리 역량): 학습활동과 관련된 교과 역량 선택
 2) 영역(이해(reception), 표현(production), 상호작용(interaction)): 학습활동의 의사소통 모드 선택
 3) 전달 매개(구두(oral), 문자(written), 다중모드(보기(viewing), 제시하기(presenting)): 학습활동에 사용되는 매개 선택
 4) 범주(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학습활동에 사용되는 언어적 자질(어휘, 언어 형식, 의사소통 기능, 담화 유형)이나 인지 기능, 책략, 태도 등을 간략히 기술

그림 7.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반 수업 설계틀

가령, 중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단원의 수업을 설계한다고 할 때, 역량 기반 교육과정의 취지상 단원 목표는 영어를 사용하여 실제 삶과 연계되어 있고 분명한 목적을 지닌 일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휘, 언어 형식, 의사소통 기능, 4 기능 등은 이러한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요소일 뿐, 그 자체가 단원

목표가 아니다. 그림 7의 예시에서는 두 개의 단원 목표를 수립하였는데, 첫째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 및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문제를 세계적인 관점으로 확장하여 인식하고 한국의 건강한 음식을 해외 청소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량 중심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차시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때 그림 7의 차시별 계획표를 활용하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요소인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범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표의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차시별 학습과업과 학습활동은 단원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절차들을 예측하여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1~3차시는 첫 번째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고, 4~7차시는 두 번째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다.

학습활동을 계획한 후에는 각 활동을 통해 함양할 수 있는 교과 역량이 무엇인지 예측해 본다. 가령, 1차시의 첫 번째 학습활동인 ‘청소년 식습관 문제에 대한 뉴스 시청하기’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된다는 점에서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관련 지을 수 있다. 혹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공동체 역량과 연결할 수도 있다. 같은 활동이라도 교사의 관점이나 목적에 따라 관련 교과 역량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처럼 학습활동과 교과 역량을 연결 짓는 사고의 과정을 통해 교사는 해당 활동을 단순 언어 연습이 아닌 학습자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역량 기반 교육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영역 칸에는 해당 학습활동이 교육과정의 내용 영역(이해, 표현, 상호작용)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 기재하고, 전달 매개 칸에는 활동에 사용할 전달 매개(구두, 문자, 다중모드)가 어떤 형태인지 선택해서 기재한다. 뉴스 시청하기의 경우에는 이해 영역에 속하며, 시청각 자료를 동시에 접하므로 전달 매개는 다중모드 방식의 하나인 보기(viewing)에 해당한다.

앞서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항목은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하나 또는 복수를 선택하는 방식인 데 반해, 범주 항목은 하위 세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가령, 1차시 두 번째 학습활동인 ‘식습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작성하기’와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주요 어휘나 언어 형식, 의사소통 기능 등이 있으면 지식·이해 부분에 기술하고, 가르칠 책략이 있다면 과정·기능 부분에 기술하면 된다. 표의 마지막 칸에는 해당 학습활동과 관련된 성취 기준을 기술한다.

차시별 계획표에서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범주, 성취 기준의 작성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획표의 모든 항목을 채우는 것이고, 이를 통해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표가 채워진 후에는 각 구성 요소 내에서 다양한 항목들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활동 방식이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가령, 영역과 전달 매개 칸의 대부분이 문자로 된 이해 활동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텍스트 대신 동영상을 사용하여 다중모드 이해 활동으로 변경하거나, 이해 활동 후에 발표 활동을 추가함으로써 표현 영역을 강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과 역량의 분포를 확인하여 다양한 교과 역량을 다루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다.

4.3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역량 기반 평가 설계를 위한 틀

평가 또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수업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의 평가틀은 4 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었지만,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수업 설계틀과 마찬가지로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범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구안한 평가 설계틀은 그림 8과 같다.

문항	성취기준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범주			예시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공동체	심미적 감성	이해	표현	구두	문자	다중모드 (보기, 제시하기)	지식: 이해	과정: 기능	가치: 태도	
1	[9영01-02] 친숙한 주제에 관한 담화나 글에서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v					v		v			v	v		쇼핑몰 마감 시간을 알리는 방송 듣고 시간 파악하기
2	[9영01-03] 친숙한 주제에 관한 담화나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한다.		v					v			v		v	v		유튜브 설명에 따라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하기
3	[9영02-03] 친숙한 주제에 관해 사실적 정보를 설명한다.		v						v	v			v	v		학교 환경 페스티벌 리포트 기사 쓰기
4	[9영02-10]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말하거나 쓴다.			v	v	v	v		v		v		v	v	v	공익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
5	[9영02-07] 친숙한 주제에 관해 듣거나 읽고 내용을 요약한다.		v	v				v	v	v			v	v	v	내가 읽은 책의 스토리 보드 만들기
6	[9영02-11]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로 말하거나 쓴다.	v						v	v		v				v	친구의 콘서트 관람 후기에 댓글 달기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독립 내용 영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해’와 ‘표현’의 결합으로 가르칠 것을 권장하고 있어 평가 대상이 되는 성취기준이 없음. 따라서 수업 설계에는 포함하였으나 평가 설계에서는 제외함.

그림 8.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반 평가 설계틀

가장 먼저 평가 대상이 되는 성취 기준을 선정한 후, 해당 성취 기준을 통해 어떤 교과 역량과 범주를 측정할 것인지, 평가하고자 하는 영역은 무엇인지, 또 해당 문항에는 어떤 전달 매개를 사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가령, 그림 8의 1번 문항에서, “[9영01-02] 친숙한 주제에 관한 담화나 글에서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교육부 2022, p. 20)라는 성취 기준을 평가하고자 할 때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가능하다. 만일 ‘쇼핑몰 마감 시간 알아보기’ 과업을 주고 마감 안내 방송을 들려준다면, 이는 지식정보처리 역량을 이해 영역에서 구두 매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언어적 자질에 대한 지식·이해와 정보 파악하기라는 과정·기능 범주가 관여한다. 만일 해당 성취 기준을 ‘일기예보 방송 보고 내일 날씨 파악하기’ 과업으로 평가한다면 전달 매개는 구두에서 다중모드로 바뀐다. 4번 문항처럼, ‘공익 캠페인 포스터 만들기’ 과업을 통해 “[9영02-10]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상황이나 목적에 맞게 말하거나 쓴다”(교육부 2022, p. 22)라는 성취 기준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현 영역을 다중모드로 측정하는 것으로 창의적 사고, 자기관리, 공동체, 심미적 감성 역량과 관련이 있고,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두루 평가할 수 있다. 이때 관련 있는 모든 교과 역량을 평가할 필요는 없고, 이 가운데 교사가 일부 교과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문항 및 평가 기준을 설계할 수 있다.

이처럼 그림 8의 평가 설계틀은 평가 문항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목표인 교과 역량과 주요 내용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전체 표를 작성한 후에는 각 요소별로 하위 요소들을 균형 있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을 학교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시행하기 위하여, 이미 오랜 기간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시행해 온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이를 토대로 개발된 수업 및 평가 지원 시스템인 LinguaFolio Online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참조하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기반 수업 설계들과 평가 설계들을 구안하였다. 수업 설계들과 평가 설계들에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주요 내용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어, 교사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수업과 평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당장 사용이 가능한 템플릿 형태의 설계들을 구안했지만, 장기적으로는 LinguaFolio Online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에서는 각 내용 요소에 대한 옵션이 주어져서 교사가 이를 단계별로 선택해 나가지만 하면 마지막에는 학생들이 수업이나 평가에서 수행할 과업 목록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예시 과업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교과 역량, 영역, 전달 매개, 범주, 성취기준별로 풍부한 과업을 제공하여 교사나 학생이 학습과 평가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과업의 개발은, 미국의 LinguaFolio Online의 근간이 되는 ‘NCSSFL-ACTFL 능력 진술문’이 실제 현장 외국인 교사들에 의해 개발된 것처럼, 학교 현장과 학생들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영어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에는 학생의 포트폴리오 구축 및 이에 대한 교사 평가 기능이 함께 탑재될 필요가 있다. 교사가 제시한 과업에 대해 학생이 자신의 수행 결과물을 학습 달성 근거로 시스템에 제출하면, 교사는 이를 확인하고 피드백과 평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인공지능 기술을 추가적으로 활용한다면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피드백과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과정 중심 평가, 학생 맞춤형 평가를 지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수업 평가 지원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이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 시나리오’ 및 ‘평가 시나리오’의 개발 및 제공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역시 미국의 외국인 교육과정 사례처럼, 실제 교사들의 시행 사례를 모아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제공한다면 교육과정, 수업, 평가 간의 연계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촉진하는 데에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일관성 있는 현장 실행 및 평가를 돕기 위하여 수업 설계들과 평가 설계들을 개발하였으나 실제 사용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사들에게 본 연구에서 개발한 설계들을 실제 사용하게 한 후 사용 양상 및 의견을 조사하여 설계들의 타당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2. 『영어과 교육과정(English Curriculum)』.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 김미진(Kim, M.). 2019.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반영된 교과 역량 특성 분석(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competence reflected in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교과교육학연구》(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3-2, 108-117.
- 윤찬미·이진화(Yun, C. M. and J.-H. Lee).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융합교육에 대한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의 인식 연구(A study on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ption of the creativity convergence education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중등영어교육》(Secondary English Education) 11-3, 25-46.

- 이소영(Lee, S.). 2016.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및 쟁점: 공통 교육과정을 중심으로(Major changes and issues of the 2015 Revised English Curriculum: With a focus on its common curriculum).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7, 499-519.
- 이영아(Lee, Y.-A.). 2022.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쟁점 및 과제(Development of 2022 revised English curriculum: Issues and Challenges). 《현대영어교육》(*Modern English Education*) 23-1, 28-41.
- 이영아(Lee, Y.-A.). 2023.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2022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변화 분석(Characteristics of a competency-based English curriculum and changes in 2022 Revised National English Curriculum). 《외국어교육연구》(*Studie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37-1, 117-144.
- 이진화(Lee, J.-H.). 2022. 유럽공통참조기준(CEFR)과 미국의 외국어 교육과정 검토를 통한 역량 기반 영어과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The analysis of CEFR and USA foreign language curriculum for developing a competency-based English curriculum in Korea).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051-1077.
- 한혜정·이승미·민용성·이주연·이수정·노은희·주형미·변희현·김현미·김광규·배화순·김상범·유금복·서지영·장근주·임윤진·권유진·이은경·윤영순·최성희(Han, H., S. Lee, Y. Min, J. Lee, S. Lee, E. Noh, H. M. Joo, H. Byeon, H. Kim, K. Kim, H. Bae, S. Kim, K. Yoo, J. Seo, K. Chang, Y. Im, Y. Kwon, E. Lee, Y. Yoon and S. Choi). 2020.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A study on Direction for Subject Curriculum Development』 (CRC 2020-8). 한국교육과정평가원(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 2012. *Performance Descriptors for Language Learners*. ACTFL.
-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 2013. *NCSSFL-ACTFL Can-Do Statements: Performance Indicators for Language Learners*. Available online at <https://www.ncssfl.org/linguafolio-can-do2013/>
-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ACTFL). 2017. *NCSSFL-ACTFL Can-Do Statements: Performance Indicators for Language Learners*. Available online at <https://www.ncssfl.org/linguafolio-linguagrow/2017-can-do-statements/>
- Khalifa, H. and C. J. Weir. 2009. *Examining Read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ullivan, B. 2021. *The comprehensive learning system*. British Council.
- National Standar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Project (NSFLEP). 2015. *World-Readiness Standards for Learning Languages*(4th ed.). ACTFL.

예시 언어(Examples in): 영어(English), 한국어(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영어(English), 한국어(Korean),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초등(Primary), 중등(Secondary)